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0호 【무게 제25964호】 주제 107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 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희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며 체육상인 김일국동지를 비롯한 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토마스 바흐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분명한 국내외정치일정속에서도 자기들을 친절히 초청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만나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자기들의 이번 평양방문목적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의 올림픽경기대회로, 성공적인 올림픽경기대회로 진행되도록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존경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서 가장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올림픽의 리념에 맞게 북한선수단이 공동입장하고 올림픽력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출전함으로써 북과 남의 평화와 화해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최대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올림픽으로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퍼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20년 도쿄올림픽경기대회와 2022년 베이징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준비를 장기적으로 협조하며 올림픽연단을 비롯한 국제체육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의 체육발전에 힘껏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규정과 판례를 초월하여 특례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는 올림픽으로서도 성공하였을뿐 아니라 북과 남의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올림픽이었다고 하시면서 얻어 붙었던 북남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수 있을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길을 열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적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우리에게 대한 협조를 성의있게 해준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사이에서 존재하는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나라의 체육정책과 그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겨울철체육종목을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세계적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추켜세우는데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훌륭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토마스 바흐위원장이 우리 나라에 벗으로 자주 오길 바란다고 따뜻이 초청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일행과 함께 국가여자축구 종합리와 평양체육단 여자축구팀사이의 축구경기를 보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인 김영남동지에게 3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대표단장인 토마스 바흐위원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로므니아전국준비위원회가 15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당의 편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의 위원장 마르완 후다흐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공화국의 불멸의 위력 등을 소개선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21일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로지노》 위원장 팔리니코프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미안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영국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영국인민당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미국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미국인민당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프랑스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프랑스인민당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독일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독일인민당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러시아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러시아인민당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최고령도자 첫 외국방문으로 중국을 방문》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28일과 29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습근평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공식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국의 수도가 된것은 너무도 마땅한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조해온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수 없다는것을 체험하였으며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 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똑똑히 새기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두 나라 선대령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조중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감에 대하여 확인하시였다. 동광의 문짜메통신, 중국의 인민망, 환구망,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오우선 뉴스 포인트》, NDTV 방송, 일본의 《니혼게이지아이신 붕》,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브리타-미디어통신, 신문 《폼소플스카야 브라우다》, 로씨야 24TV방송, 덴마크TV방송, 인터넷통신사인 가제파, 루, 데이다, 인터넷잡지 《렘워워》, 인터넷홈페이지인 《빠르리오며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BBC방송, 구바의 브렌자 라미나통신, 베네수엘라의 엘메우르TV방송, VTV방송, 미국의 CNN방송,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 첫 외국방문으로 중국을 방문》, 《김정은령도자 중국을 비공식방문》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내용들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